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및 학령초기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련성 : 보령 베이비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장 미 나(서울대 연구원) · 한 경 혜(서울대 교수) · 배 연 지(서울대 학사과정)

최근 아버지의 존재여부 뿐 아니라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의 영향만큼 중요하고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Cabrera, Tarkow & Shannon, 2007).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자녀발달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서구자료를 중심으로 한 결과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인 한국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들 자녀의 다양한 발달상황과 아버지의 역할참여의 연관성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비교적 젊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보령 모자생활과학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보령 베이비 패널 양육 소비문화 연구’ 자료 중 일부인 1,399 가구에 속한 아버지와 그들 자녀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버지역할(한국아동패널(2010), 남성의 부성경험연구(김혜영,2008)) 참여실태를 자녀의 월령(영아/유아/학령기 3개의 코호트로 구분)에 따라 구분지어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상황을 월령별 대표적인 발달검사 도구(DEP(0-2세, 영아선별검사지), K-CDI(3-5세, 한국아동 발달검사), SDQ(6-8세, 정서행동의 강점,난점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수준과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가장 자주 참여하는 양육활동은 ‘놀아주기’였으며, 전체 아버지의 70% 이상이 거의 매일 혹은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울 때 달래주거나 재워주는 등 직접적인 돌봄활동에 대한 참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자녀의 아버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아버지로서 참여하는 양육 참여빈도와 정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발달검사 결과, 영아의 경우 의사소통과 사회성발달에 있어 발달이 지연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의사소통:23.2%,사회정서:21%) 유아의 경우에도 사회성 발달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1%). 학령기자녀의 경우도 정서문제 영역의 경계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0%). 셋째, 영아와 유아의 경우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자녀의 발달수준 관련성은 미비했다. 그러나 학령초기 자녀의 경우, 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난점영역과 아버지로서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는 관련성은 영유아 자녀의 아버지들에 비해 좀 더 긴밀하게 나타났다(정서문제 $r=-.16$ $p<.01$, 품행문제 $-.13$ $p<.01$, 과잉행동/주의력결핍 $r=-.18$ $p<.001$). 코호트별 자녀의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아버지역할이 영유아 자녀의 신체 및 인지영역과 같은 직접적인 발달적 측면보다는, 월령이 조금 더 높은 학령기 이상 자녀들의 심리, 정서영역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녀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